

악마를 보았다

올 여름 '센' 영화 어른들만 보세요

'강한 영화가 몰려온다.' 여름방학 기간은 극장가 성수기 중 하나. 이 기간 중에는 대부분 가족용 영화들이 상영되는 데 반해 올 극장가는 '센 영화'가 강세다. 외국 영화들이 가족용으로 '토이스토리', '인셉션' 등 고령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영화로 승부를 걸고 있는 데 반해 한국영화들은 영화수위가 높아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강한 영화로 관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18세 이상 관람가'를 받는 것은 흥행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강한 메시지와 사실적인 화면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작들은 유명 감독과 배우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작품성'면에서도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4일 개봉한 '아저씨'는 장기 밀매 등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로 18세 이상 관람가를 받았다.

주인공은 불행한 과거를 안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태식. 존재를 감추고 전당포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에게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은 옆집 소녀 소미다. 하지만 그녀에게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고 위기에 처하자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열혈남아'의 이정범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각본까지 직접 쓴 '아저씨'는 '소녀'를 구하기 위한 태식의 이야기를 속도감 있게 펼쳐보이고 있다. 특히 영화에 등장하는 액션신은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물었던 이국적이고 복합적인 무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주인공 태식 역을 맡은 원빈은 지금까지 꽃미남의 여린 이미지를 벗고, 강도 높은 액션신을 선보이며 새모습을 보이는데 성공했다.

11일 개봉예정인 '악마를 보았다'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개봉이 불투명해졌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4일 "도입부에서 시신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고고에 넣어 둔 장면 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고 판단돼 제한상영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는 등급으로, 이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설치와 운영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은 한 곳도 없어 '악마를 보았다'가 이대로 제한상영가로 확정되면 국내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된다.

제작사측은 연출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편집 후 다시 등급 판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영화는 연쇄살인범에게 약혼녀를 잃은 국정원 요원의 잔인한 복수를 다루고 있다. '악마를 보았다'는 최고 감독과 최고 배우들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총무로의 기대치가 높은 작품이다.

'달콤한 인생'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 놈'의 김지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기대감을 높이며 두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병헌과 '주먹이 운다' 이후 오랜만에 상업영화로 복귀한 최민식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이 관전포인트다.

특히 '올드보이'에서 '장도리산' 등 강력한 연기를 보여줬던 '연기 9단' 최민식이 선보일 살인마 연기에 기대감이 높다.

최근 관람연령층의 한계를 뚫고 3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이끼' 역시 18세 관람가 영화다. '투깝스', '공공의 적'의 강우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끼'는 윤태호의 동명의 만화를 스크린에 옮긴 작품으로 무엇보다 정재일·박해일·유해진·김상호 등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들의 힘이 잘 드러나는 영화다.

허반기에도 강한 영화들이 속속 대기중이다. 할리우드 메이저영화사의 투자를 받은 '황해'는 최근에 불고 있는 강도높은 스릴러 영화 붐을 일으킨 '추격자' 제작진이 그대로 뭉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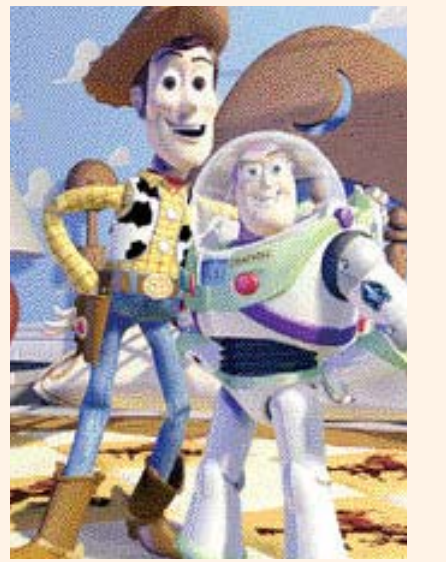
나훈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하정우·김윤식이 함께 호흡을 맞춘 영화로 빛을 보기 위해 중국에서 살인 의뢰를 받고 서울에 잠입한 한 남자가 또 다른 살인청부업자에게 쫓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 흥행영화 '영웅본색'의 한국판 리메이크 작품인 '무적자' 역시 강한 남성 영화다.

영화는 무기밀매조직의 생포 혁과 영춘, 그리고 형사가 되어 이들을 쫓는 혁의 동생 철. 이들 모두를 제거하고 조직을 손에 넣으려는 태민 등 깊은 상처와 오택로 어긋난 네 남자가 배신과 음모에 휘말려 예상치 못한 결말로 치닫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파이란'의 송해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주진모·송승헌·조한선·김강우 등 매력적인 네배우가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토이스토리 3



'니모를 찾아서', '인크레더블', '몬스터 하우스' 등을 만든 애니메이션 명감독이 제작한 장난감들의 유쾌한 모험담 '토이스토리'의 마지막 시리즈로 3D로 제작됐다.

지난 1995년 처음 등장한 '토이스토리'는 전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2편이 제작된 지난 1999년 이후 11년 만에 시리즈 3편을 내놓았다.

자신들의 든든한 친구였던 앤디가 대학생이 되면서 장난감 우디와 친구들은 위기에 처한다. 앤디가 기념으로 챙긴 우

장난감들의 유쾌한 모험
마지막 시리즈 3D로 제작
톱 행크스 등 목소리 연기

디를 제외하고 봉투째 묶인 장난감들은 앤디 엄마의 실수로 쓰레기차에 실릴 뻔하다. 가까스로 탈출해 햇빛마루 놀이방으로 향한다. 하지만 수많은 장난감과 영원히 놀아줄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에 도착한 천국같은 놀이방은 점점 험악한 이면을 드러낸다.

분홍 곰돌이의 포근한 미소와 귀여운 아기 얼굴을 하고 있는 '빅 베이비'는 독재자로 군림하며 장난감들에게 세상에 대한 중요성을 주입하고 놀란 우디 일행은 다시 한번 일생일대의 탈출을 감행한다.

우디 역의 톱 행크스를 비롯해 팀 앨런, 조앤 쿠삭, 네드 비티 등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리 언크리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각본은 마이클 안트가 맡았다.

본 영화가 시작되기 전 상영되는 테디 뉴튼 감독의 단편 '낮과 밤'도 눈길을 끈다. <전체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저씨

폭행·살인·납치... 스릴러
강한 메시지로 관객 몰이
유명 감독·배우 대거 참여
아저씨 등 작품성도 뛰어난



이끼

슬로시리 승도

시골버스 애상여행 (최신형 관람버스)

▶ 일반석: 15,000원 / VIP: 18,000원

승도 1일 체험관광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콜롬버스시네마

| | | | |
|-----|-------------------------|-----|---------------|
| 1관 | 고사2교생 실습 (15세) | 1관 | 슈렉포에버(더빙)(전제) |
| 2관 | 오션스/마음이2/마법사의계자(전제) | 2관 | 인셉션(12세) |
| 3관 | 솔트(15세) | 3관 | 마법사의계자(전제) |
| 4관 | 솔트(15세) | 4관 | 이끼(18세) |
| 5관 | 이끼(18세) | 5관 | 이끼(18세) |
| 6관 | 명함정코난(전제)/슈렉포에버(더빙)(전제) | 6관 | 도라에몽 (더빙/전제) |
| 7관 | 아저씨(18세) | 7관 | 솔트(15세) |
| 8관 | 인셉션(12세) | 8관 | 솔트(15세) |
| 9관 | 명함정코난(전제)/인셉션(12세) | 9관 | 명함정코난(전제) |
| 10관 | 아저씨(18세) | 10관 | 마음이2 (전제) |

상무점, 하남점

1588 - 7941

MEGABOX

| | | |
|----|---------------------|------|
| 1관 | 아저씨(18세) | 최고급관 |
| 2관 | 솔트(15세) / 인셉션(12세) | |
| 3관 | 인셉션(12세) | |
| 4관 | 인셉션(12세) | |
| 5관 | 스텝업3D (12세) | |
| 6관 | 솔트(15세) / 토이스토리(전제) | |
| 7관 | 고사2교생 실습(15세) | |
| 8관 | 이끼(18세) | |
| 9관 | 아저씨(18세) | |

www.megabox.co.kr

1544 - 0600

CINUS

| | |
|----|---------------|
| 1관 | 고사2교생 실습(15세) |
| 2관 | 이끼(18세) |
| 3관 | 솔트(15세) |
| 4관 | 오션스(전제) |
| 5관 | 솔트(15세) |
| 6관 | 아저씨(18세) |
| 7관 | 아저씨(18세) |

www.cinus.co.kr

1544-0070, 511-1000